

# 2007년 건설관련 국내 전시회 안내

전시회장	행사명	일정	건축설비전시품목
COEX	제9회 홈텍스2007	2.7.~2.11.	냉난방/환기설비 위생/급수설비
	2007 하우스브랜드페어	2.25.~3.1.	급수/위생설비재 냉난방 환기설비재
	2007 정부조달 우수 제품전	4.11.~4.14.	건설/환경부문
	제12회 한국국제용접기술전	5.8.~5.11.	용접기기, 자동화 용접장치 등
	2007 에너지전시회	10.2~10.5.	신재생에너지 이용기기, 건축자재/설비, ESCO사업
	2007 깨끗한 공기, 쾌적한 실내공간	10.10.~10.12.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 집진설비
서울무역전시장	제17회 MBC 건축박람회	2.1.~2.5.	건축자재, 인테리어 등
	전원주택 리모델링 조정박람회	4.13.~4.16.	조정건축자재



## 살을 베일 염려가 없어요 - 안전면도기

옛날 사람들은 수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고고학자들은 남자들이 2만 년 전부터 면도를 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벽화라든가 묘지에서 면도기로 쓰였던 날카로운 돌조각과 조개껍데기 등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다가 철과 동을 가공하는 기술이 개발된 후에는 철과 동을 재료로 한 면도기를 만들어 썼다고 한다.

면도기의 혁신적 개혁은 세일즈맨이면서 발명가였던 질레트(King Camp Gillette)에 의해 이뤄졌다. 그는 면도를 하다가 자꾸 살을 베자 안전하게 면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그는 철물점에서 시계 부품에 쓰이는 강철 리

본과 줄 등을 사다가 밤을 새 가며 발명에 몰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발소에서 이발사가 머리에 빗을 대고 머리카락만 안전하게 자르는 모습을 본 그는 무릎을 쳤다.

“그래, 그거야! 칼날을 얇은 철판 사이에 끼워 넣어 털만 칼날에 닿도록 하면 살을 베일 염려가 없어!”

그는 즉시 실험에 돌입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1901년 특허를 출원한 질레트는 안전면도기 생산에 들어갔고, 곧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 후 더 편리한 전기 면도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의 안전면도기는 면도기의 혁명이었다.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